■ **11월 셋째 주,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교재**

"다윗과 골리앗: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 이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
이 교재는 매일 하루 15~2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요일마다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세요.

말씀읽기 - 제시된 성경 구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묵상하기 - 핵심 질문들을 통해 깊이 생각합니다.
기록하기 - 빈칸에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적습니다.
실천하기 - 오늘의 실천 과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 이 주의 말씀 / 사무엘상 17:41~49

여러분의 삶에서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매번 제자리걸음인 듯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가족 관계의 깨어짐 앞에서, 또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종종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마치 거대한 장벽이나 거인처럼 느낍니다. "내가 과연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는 이 거인과 싸우기 위해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내심이라는 나름의 '무기'를 들고 나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위치한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단순히 힘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 세상의 권세,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탄의 대리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극도의 절망과 두려움의 현장에, 성경은 한 소년의 담대한 외침을 기록합니다. 다윗입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던진 외침, 그 선포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적 메시지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41-49절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전쟁이 과연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깨닫고 참된 소망과 능력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한 개인의 영웅담을 넘어, 구속사적 분기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외모를 상징하는 인간적인 왕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사망 권세의 상징이며, 다윗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고하는 예표적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행한 가장 위대한 일은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포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삼상 17:47)

모두가 이 싸움의 승패가 무기와 힘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의 본질을 뒤집어엎습니다. 골리앗이 모욕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46절).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린 전쟁이며, 그 전쟁의 주인이자 구원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대한 문제들(질병, 가난, 죄, 사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엡 6:12). 내가 이기려 하면 할수록 절망만 커집니다.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싸움의 주도권을 우리 자신의 연약한 어깨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삼상 17:45)

골리앗이 가진 무기는 세상이 자랑하는 힘의 총체였습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진정한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기가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이나 지혜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약하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고전 1:27).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 의미는 단지 '믿으면 이긴다'는 교훈이 아닙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자로서 싸웠고, 그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영원한 골리앗 앞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단 한 분의 진정한 대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조롱한 다윗의 '물매와 돌'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럽고 연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싸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셨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사망 권세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부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누더기와 같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골리앗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그분의 십자가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미 성취된 승리"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1. 불가능한 문제를 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 여러분의 자기 의(義)와 분노라는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이 싸움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이름으로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2. 세상의 성공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라
*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경쟁, 능력, 실적이라는 골리앗을 마주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윤리를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나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내 삶에서 일하고 있음을 담대히 보여주는 증인이 되십시오.

3.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와 함께 추격하는 삶을 살아라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의 머리를 부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유혹, 염려, 불안이라는 잔당이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이 진리 위에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매일 매 순간 결단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두려움의 골짜기를 떠나, 승리의 현장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서 들려온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미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더 이상 당신의 연약한 막대기와 돌을 의지하며 홀로 서 있지 마십시오. 오직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확정된 승리의 현장에서 매일의 삶을 용감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 월요일 | 싸움의 주권 인정

□ 오늘의 주제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드림

□ 성경 본문 | 사무엘상 17: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 묵상 내용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자신의 용맹이나 기술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골리앗(재정 문제, 관계 갈등, 질병, 중독, 불안)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다 지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네 싸움이냐, 내 싸움이냐?"
싸움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승리의 시작입니다.

□ 실천 과제
*1단계: 나의 골리앗 구체화하기
지금 나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를 적으세요.
예시:
- "남편과의 대화가 항상 싸움으로 끝나는 관계"
- "직장 상사의 부당한 대우와 그로 인한 분노"
- "자녀의 게임 중독과 학업 포기"

*2단계: 선포 기도
손을 가슴 위에 얹고, 크게 또는 속으로 선포하세요.
"이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 개입해 주십시오."

□ 현실적인 예시 답변
Q. 그런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 오늘의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제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썼던
이 문제를 오늘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전쟁입니다.
제 조급함, 두려움, 조절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화요일 | 무기 점검 (자기 부인)

□ 오늘의 주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 성경 본문 | 고린도전서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 묵상 내용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혔습니다. 전쟁터에서 당연히 필요한 장비였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벗었습니다. 왜일까요?
사울의 갑옷 = 세상의 방법, 인간의 지혜, 내 경험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갑옷보다, 자신이 늘 의지해 온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물맷돌 다섯 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검색하나요, 기도하나요?
- 중요한 결정 앞에서 사람의 조언을 구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나요?
- 내 능력, 학벌, 인맥, 재산에 안심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안심하나요?

□ 실천 과제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점검하세요.

*점검 질문:

1. 오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 [ ] 친구에게 전화/카톡
   - [ ] 인터넷 검색
   - [ ] 술/음식/쇼핑으로 스트레스 해소
   - [ ] 기도

2.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주로 무엇을 가장 신뢰하는가?
   - [ ] 내 경험과 판단
   - [ ] 전문가의 조언
   - [ ] 다른 사람들의 의견
   - [ ] 기도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

3.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을 잃는 것인가?
   - [ ] 돈/재산
   - [ ] 건강
   - [ ] 인정/명예
   - [ ] 관계
   - [ ] 하나님과의 관계

□ 자가 진단: 나의 '사울의 갑옷'은?

*다음 중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 재정: 통장 잔고가 많으면 평안하고, 적으면 불안하다.
- 능력: 내가 잘하면 안심되고, 실수하면 자책한다.
- 인맥: 아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고, 없으면 위축된다.
- 건강: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다.
- 자녀: 아이가 잘되면 기쁘고, 안 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다.

*오늘 내려놓을 나의 '갑옷' 한 가지:
예: "내 경력과 스펙으로 인정받으려는 마음"
예: "통장 잔고를 보며 안심하려는 습관"

□ 오늘의 기도문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제 _____(능력/돈/인맥/건강 등)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 안전과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수요일 | 그리스도 중심 묵상

□ 오늘의 주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 한다. -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

□ 성경 본문 | 로마서 5:12, 18-19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 묵상 내용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구조:

- 이스라엘 진영 ↔ 골리앗 ↔ 블레셋 진영
- 양쪽 군대는 싸우지 않고 대표자 싸움을 기다림
- 다윗이 이기자 →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
- 골리앗이 졌으므로 → 블레셋 전체가 패배

이것은 "대표성 원리"입니다.

*복음의 구조:

- 인류 ↔ 죄와 사탄 ↔ 하나님
- 우리는 죄의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음
-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로 오셔서 싸우심
-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승리
-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 나도 이긴 자

□ 다윗과 예수님 비교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대표	인류의 대표 (둘째 아담)
골리앗을 물리침	죄와 사탄과 사망을 물리침
돌멩이 5개	십자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 이루었다" (요 19:30)
이스라엘이 그의 승리에 참여	믿는 자가 그의 승리에 참여

✍ 실천 과제

오늘 나를 공격하는 '죄의 유혹'이나 '정죄감'을 만날 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진리로 맞서세요.

*실전 적용:

상황 1: 유혹이 찾아올 때
- 잘못된 반응: "나는 의지가 약해. 또 질 거야."
- 복음적 반응: "예수님이 이미 이 죄를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다." (갈 5:1)

상황 2: 과거의 실수가 떠올라 자책할 때
- 잘못된 반응: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야."
- 복음적 반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롬 8:1)

상황 3: 분노가 치밀 때
- 잘못된 반응: "내가 복수해야지. 절대 안 참아."
- 복음적 반응: "예수님도 욕을 받으셨으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나도 그 능력을 받았다." (벧전 2:23)

□ 오늘의 묵상 질문

1. 지금 나를 정죄하는 목소리(죄책감, 수치심, 두려움)는 무엇인가?

2. 그 목소리에 대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3.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진리로 살아갈 것인가?

□ 오늘의 기도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표자로 보내주셔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대신 싸워 이기셨습니다.
죄가, 사탄이, 사망이 저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에 나도 이긴 자입니다.
오늘 _____(구체적 유혹/두려움)이 찾아올 때,
제힘으로 싸우지 않고,
예수님의 승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다 이루었다"는 그 선포가
제 삶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목요일 | 이름의 능력 의지

□ 오늘의 주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행하기

□ 성경 본문 | 사무엘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 묵상 내용

골리앗은 자신의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권세, 임재를 의미합니다.

- 만군의 여호와 = 천사 군대를 거느리신 전쟁의 하나님
-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름이 함께하셨기 때문

우리도 어려운 상황, 무서운 사람 앞에 설 때:
- 내 감정(분노, 두려움, 열등감)이 앞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를 기억하면,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 실천 과제

오늘 하루, 어려운 상황이나 사람을 대면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를 속으로 되뇌며
온유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세요.

실전 훈련:

상황	내 감정	이름으로 반응
불친절한 고객 응대	짜증, 분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온유하게" → 부드러운 목소리로 응대
시어머니 전화	두려움, 위축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하게" → 존중하되 경계를 지킴
부당한 비난 받음	억울함, 변명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지혜롭게" → 침묵하거나 지혜롭게 답함
자녀가 말을 안 들음	답답함, 폭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인내하며" → 소리 지르지 않고 단호하게

□ 자가 점검: 오늘의 실천 기록

오늘 내가 만난 어려운 상황/사람:

그때 나의 첫 감정: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되뇌며 실천한 반응:

결과/소감:

□ 주의할 점

Q. "하나님의 이름으로"를 외우면 마법처럼 모든 게 해결되나요?
A. 아닙니다. 이것은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입니다.
-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나의 반응, 나의 마음은 바뀝니다.
-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기도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소서.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화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유하게
억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므로
나는 혼자가 아니며,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금요일 | 가정/관계의 적용

□ 오늘의 주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실천하기

□ 성경 본문 | 에베소서 4: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 묵상 내용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못되게 굽니다.

- 교회에서는 친절하다가, 집에서는 짜증
- 직장에서는 참다가, 배우자에게는 폭발
- 타인은 용서하면서, 가족은 용서 못 함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내 것이야.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교묘한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 저 사람도 나처럼 죄인입니다.
-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 나도 예수님께 저렇게 용서받았습니다.

가족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섬기세요.

✍ 실천 과제

*1단계: 가장 어려운 사람 한 명 떠올리기

가족 중 가장 대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 대화만 하면 싸우는 남편
예: 말을 안 듣는 자녀
예: 잔소리가 심한 시어머니
예: 냉담한 아버지
예: 무책임한 형제

*2단계: 복음적 시각으로 기도하기

변화 요구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 말을 듣게 해 주세요."

복음적 기도: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받았으니,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3단계: 작은 친절 하나 실천하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복음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세요.

*실천 아이디어:
- 평소 안 하던 집안일 하나 해 주기
- 좋아하는 간식 사다 주기
- 먼저 "미안해" 또는 "사랑해" 말하기
- 비난하지 않고 경청하기
- 잔소리 대신 축복 기도해 주기

□ 나의 실천 계획

가장 대하기 어려운 사람:
예: 남편 / 아들 / 시어머니 / 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
예: 무시당하는 느낌, 답답함, 분노, 두려움

복음적 시각으로 다시 보기:
예: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다.

이번 주말에 실천할 작은 친절:
예: 좋아하는 음식 해 주기
예: 먼저 사과하기
예: 평소 안 하던 집안일 해 주기
예: 비난 대신 경청하기

□ 오늘의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못되게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_____(이름)을(를) 제 생각대로 바꾸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니,
저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는 순종으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토요일 | 승리 선포 및 감사

□ 오늘의 주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누리기

□ 성경 본문 | 시편 118:15
"의인의 장막에는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 묵상 내용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도망갔고, 이스라엘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기셨습니다.

- 죄는 이미 졌습니다.
-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 사망은 이미 삼켜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승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 실천 과제

*한 주간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 찾기

월요일에 주님께 드린 문제를 다시 꺼내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 감사 목록을 작성하세요.

*주의:
-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세요.
- 작은 것, 사소한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 나의 감사 목록 작성하기

*월요일에 주님께 드린 문제:
(다시 적어 보세요)

*한 주간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

1.
2.
3.

□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Q. 한 주가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문제는 그대로지만, 내 마음은?
- 평안이 조금이라도 찾아왔나요?
- 조급함이 줄었나요?

작은 은혜는 없었나요?
- 하루 세끼 먹을 수 있었다.
- 건강하게 잠을 잤다.
- 누군가 격려의 말을 해줬다.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
- 한 주 전엔 하나님께 드릴 생각도 못 했을 수 있어요.
-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 승리 선포
다음을 크게 소리 내어 읽으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므로,
나도 승리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 오늘의 기도문
승리의 하나님,
한 주간 저와 함께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크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 목록을 하나씩 고백하세요)
_____ 감사합니다.
_____ 감사합니다.
_____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안식하며, 이미 이기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일 | 주님 앞에 헌신

□ 오늘의 주제
한 주간의 실천을 돌아보고, 삶 전체를 주님께 헌신하기

□ 성경 본문 | 로마서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묵상 내용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삶의 결과였습니다.

- 양 치는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일상의 신실함이 위기의 순간을 결정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 월: 싸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 화: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 수: 예수님의 승리를 묵상했습니다.
- 목: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 금: 가까운 사람을 섬겼습니다.
- 토: 감사와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제 주일, 앞으로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 실천 과제

*1단계: 한 주간 돌아보기

요일별 실천을 간단히 평가해 보세요.

요일	주제	실천했나요?	소감 한 줄
월	싸움의 주권 인정	□ 잘함 □ 보통 □ 부족	
화	무기 점검	□ 잘함 □ 보통 □ 부족	
수	그리스도 중심 묵상	□ 잘함 □ 보통 □ 부족	
목	이름의 능력 의지	□ 잘함 □ 보통 □ 부족	
금	가정/관계 적용	□ 잘함 □ 보통 □ 부족	
토	승리 선포 및 감사	□ 잘함 □ 보통 □ 부족	

*2단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한 주간 실천 중 가장 은혜받은 것, 가장 도전받은 것 하나를 적어보세요.

예: "목요일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를 되뇌며
상사에게 온유하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예: "금요일에 남편에게 먼저 사과했을 때,
복음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나의 기록:

*3단계: 앞으로의 헌신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며,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세요.

Q1. 이번 주 실천이 어려웠던 부분은?
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건너뛰었다
예: 감정이 앞서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Q2. 앞으로 계속 실천하고 싶은 것은?
예: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주님께 하루를 드리는 기도
예: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되뇌는 습관

Q3. 특별히 주님께 드리고 싶은 삶의 영역은?
예: 직장 생활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 자녀 양육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재정을 주님께 맡기고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 헌신 선포문

묵상 시간에, 다음을 소리 내어 선포하세요.

나는 오늘 선언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재정, 관계, 직장, 가정, 건강, 자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자이시며,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나도 승리자입니다.

앞으로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는 나의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 주님께 드리는 헌신 편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는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께 편지를 써보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번 주 저는 _____
_____
를 배웠습니다.
특히 _____
_____
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저는 _____
_____
_____
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제 _____(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내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__년 __월 __일 _____ 드림

□ 오늘의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제가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만날 모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 몸과 시간과 재정과 관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제가 드리는 산 제물이며,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